

아시아챔피언스리그 10월 재개... K리그1 일정 앞당겨져

# 시즌 막판 순위경쟁 '최대 변수' 로

프로축구연맹, 파이널 라운드 ACL 일정 전후로 5경기 나눠 치르기로... 주중 경기 2회 늘어나

10월 재개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로 프로축구 K리그1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이번 시즌 막판 순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K리그1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7라운드 축소 운영돼 우승팀을 가리는 파이널A(1~6위)와 강등팀을 결정하는 파이널B(7~12위)가 22라운드에서 결정된다.

울산 현대(승점36)와 전북 현대(승점35)의 '1위 싸움'과 6위부터 11위까지 승점 차가 3점밖

에 나지 않는 '중위권 경쟁'이 역대급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연기됐던 ACL이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AFC는 최근 동아시아지역 G조와 H조 경기를 10월17일부터 11월1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열기로 했다.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가 각각 G조와 H조에 속해 있다.

FC서울과 울산 현대가 포함된 E조와 F조 일정은 나오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CL 재개가 확정되면서 K리그1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대표지회

의를 통해 ACL 일정 전후로 파이널 라운드 5경기를 나눠 치르기로 했다.

ACL이 시작되기 전에 2경기를 하고, ACL에 나선 K리그1 일정이 모두 끝난 뒤 3경기를 치르는 방식이다.

9월 25~27일 예정됐던 21라운드와 10월 4일 예정됐던 22라운드를 각각 17~18라운드와 19~20라운드 사이 주중 경기로 앞당겼다.

주중 경기가 총 2회 늘어나면서 K리그1 각 팀은 일주일에 3경기를 치러야 하는 '죽음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수층이 두꺼운 울산, 전북 등은 선수 운영이 원활하지만, 중하위권 팀들은 정상적인 로테이션이 쉽지 않다. 더구나 8월 22~30일까지 이어지는 3연전은 무더위로 선수단 체력 유지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 경기 결과에 1위가 바뀌는 우승 싸움은 물론 파이널A 막차를 타려는 6위권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1위 울산과 2위 전북의 승점 차는 '1점'이며, 6위 성남FC부터 11위 수원까지 승점 차는 '단 3점'에 불과하다. ACL로 앞당겨진 K리그1 일정이 올 시즌 판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뉴시스

체육회, 실업팀 지도자 대상

스포츠폭력 추방 특별교육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체육계 폭력 관련 사태의 심각성과 스포츠 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인권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28일 국가대표·후보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17개 시도 실업팀 지도자 115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철인3종 폭력 사건 등 체육 현장에서 심각한(성)폭력이 재확인됨에 따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최근 불거진 체육현장 스포츠폭력 사태와 관련한 경과보고 영상 시청에 이어 최숙현 선수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다.

또한, 선배 지도자인 대한체육회 신치용 선수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지도자의 덕목과 리더십'에 대해 강의했으며, 최종덕 국민감사단장의 '(성)폭력 등 스포츠인권 침해 심각성' 등 강의로 함께 진행했다. /뉴시스

## '6이닝 1실점 호투' 류현진, 시즌 2승 좌절

불펜 방화가 원인 제역할은 해  
토론토, 연장 접전 끝 5-4 승리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잘 던지고도 불펜 방화로 시즌 2승을 놓쳤다. 토론토는 연장 접전 끝에 5-4 진압승을 거뒀다.

류현진은 12일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살렌 필드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2피안타(1홈런) 2볼넷 7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투구 수는 92개. 이 중 스트라이크는 57개였다.

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QS, 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달성한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5.14에서 4.06로 내려갔다.

류현진은 팀이 3-1로 앞선 7회초 교체돼 승리 투수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팀이 4-1로 앞선 9회말 마무리 투수 앤서니 배스가 동점 스리런을 허용한 탓에 승리가 무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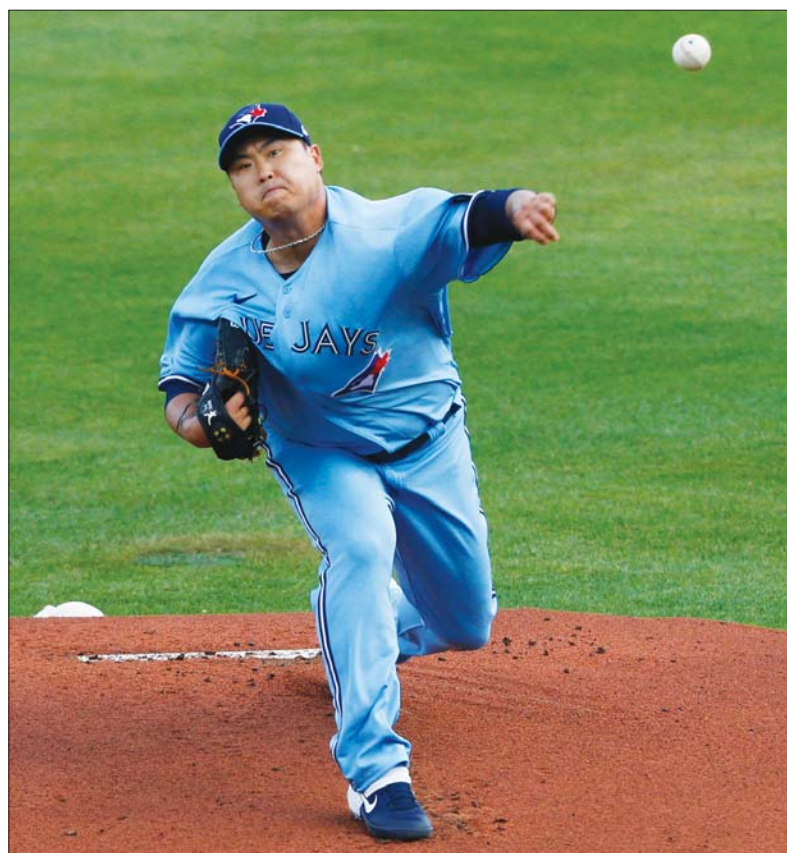
류현진은 에이스다운 호투를 펼치며 제 역할을 했다.

지나해 말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토론토와 4년, 8000만 달러에 계약한 류현진은 개막 직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 25일 탬파베이 레이스와 경기에서 4%이닝 3실점에 그쳤고, 지난달 31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도 4%이닝 5실점으로 시즌 첫 패를 떠안았다.

그러나 류현진의 부진은 오라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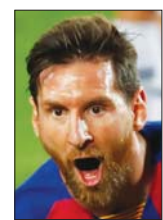
지난 6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올리며 부활 신호탄을 쏘고, 이날은 피홈런 하나를 제외하고 홈집을 데 없는 투구로 에이스의 자격을 입증했다. /뉴시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11일(현지시간) 미 뉴욕주 버펄로의 살렌 필드에서 열린 미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은 30이닝 2피안타(1홈런) 4K 1실점하고 4회 마운드에 올라 투구하고 있다.

## 바르셀로나, 유럽축구 평균 연봉 1위

메시, 주급 18억원 받아  
수아레스·그리즈만 6억원  
평균 연봉 2위 레알 마드리드  
3위는 유벤투스·4위 맨시티



리오넬 메시

다. 지네딘 지단 감독과 불화를 겪고 있는 베일은 최근 열린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유럽 빅리그에 속한 구단 중 선수단에 가장 많은 연봉을 지불하는 구단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매체 더선은 12일(한국시간)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유럽 빅리그 클럽 톱10을 공개했다.

1위는 바르셀로나로 선수당 평균 937만 파운드(약 145억원)를 받고 있다. 선수단 전체 연봉은 4억3800만 파운드(약 6500억원)에 달한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의 주급만 115만 파운드(약 18억원)다. 보너스와 초상권 등을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진다.

메시와 함께 공격 삼각편대를 이루는 루이스 수아레스와 앙투안 그리즈만도 6억원의 주급을 받는다.

2위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로 선수당 평균 850만 파운드(약 125억원) 연봉을 지불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에선 '떡튀'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레스 베일이 주급 60만 파운드(약 9억원)로 팀 내 최고 연봉을 자랑한

3위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보유한 유벤투스(이탈리아)로 평균 771만 파운드(약 119억원)다. 호날두가 주급 54만 파운드(약 8억4000만원)로 최고 연봉자다.

4위는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698만 파운드), 5위는 파리생제르맹(프랑스·619만 파운드), 6위는 바이에른 뮌헨(독일·612만 파운드) 순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는 평균 553만 파운드(약 80억원)으로 8위에 올랐다. 맨유에선 데이비드 데 헤아가 주급 37만 5000파운드(약 6억원)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리버풀(잉글랜드)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이 537만 파운드(약 83억원)로 공동 8위를 차지했고 10위는 아스널(잉글랜드·438만 파운드)이다.

리그별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4팀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 라리가 3팀, 독일 분데스리가와 프랑스 리그앙, 이탈리아 세리에A가 각 1팀씩이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자연이 주는 휴식~  
Healing의 시작!

# 강수여행

발길 닿는 곳마다 자연이 주는 넉넉함과 정겨운 미소,  
포근한 인정이 넘치는 장수로 오세요!